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1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에  
4,600만 달러 규모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 건립 발표

*2023년 봄 28,000 평방피트의 새로운 시설 개설*

*여기에서 렌더링 보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에 4,600만 달러 규모의 최첨단 방문자 센터를 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시설은 나이아가라 강 회랑을 따라 모험을 하는 관문이 될 것이며, 방문객 경험을 상당히 개선하고, 자연을 보완하며, 사계절 내내 공원 내 방문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새로 건설될 이 센터는 새로운 관광객과 다시 찾는 관광객을 환영하여 지역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제공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뉴욕 서부에만 있는 세계의 불가사의이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인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는 뉴욕주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랜드마크 보석들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뉴욕주의 관광 경제를 증진시킵니다." 28,000평방피트의 이 새로운 방문자 센터 건물은 작년 Welcome Plaza가 완공되면서 시작된 이 폭포와 도시의 다운타운 비즈니스 지구 사이에 보다 원활한 보행자 연결로를 만들 것입니다. 35년 된 기존 방문자 센터가 철거되면 American Falls의 전망이 더 확보될 것입니다. 이 시설에는 새로운 발권 및 안내 데스크, 몰입형 체험을 포함하는 해석 박물관 공간 및 자연, 산업 및 미국 원주민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시를 포함하고, 방문자에게 지역 고유의 기회, 새로운 양보 공간, 화장실 및 관련 지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리, 강철 및 콘크리트 시설은 자연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옥상 태양 전지판, 녹색 지붕 요소 및 별도의 화장실 건물을 포함합니다. 향상된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예로는 새로 접근 가능한 경로, 식목, 야외 전시, 해석 및 길 찾기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제거된 나무를 대체하기 위해 100그루 이상의 새로운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시설과 바로 인접한 기존 7,000평방피트 지역 관리 건물은 다목적

커뮤니티 룸, 지역 기록 보관소, 나이아가라 지역 통역 직원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도록 조정됩니다.

2023년 메모리얼 데이까지 즉시 착공해 마무리될 프로젝트의 계약자로 R.P. Oakhill이 지정되었습니다. 방문자 센터 개발의 국가적 리더인 G.W.W.O는 건축가이고 Haley Sharpe Design은 내부 해석 전시실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23년 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2014년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의 과거 소유주이자 아메리칸 풋볼 리그(American Football League)의 공동 설립자인 Wilson의 사후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 Ralph C. Wilson, Jr. 재단에서 이 프로젝트에 8백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Wilson 재단은 웨스턴 뉴욕의 관광, 공원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개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이라는 Ralph Wilson의 놀라운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립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신 Wilson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특별한 이야기와 놀라운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되어 매우 기쁘며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시와 지역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명소를 탐험할 수 있기를 독려합니다."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David O. Eg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창조된 웰컴 센터에 담긴 놀라운 디테일과 세심함 수준은 나이아가라의 관광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제를 향상하고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나이아가라 강 그린웨이(Niagara River Greenway)를 따라 이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웨스턴 뉴욕의 상징적인 여행지입니다." "새로운 방문자 센터의 건설로 인해 공원의 자연 경관과 더 잘 연결되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문자를 위한 현대적인 진입 지점이 설정됩니다."

**Rob Ortt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가 건립되면 방문객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주립공원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역사와 경험을 탐험할 수 있으며, 이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작년 Welcome Plaza의 완공에 이은 확장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주립공원과 나이아가라 폭포 다운타운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도시의 비즈니스 지구 내에서 상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과 거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뒷마당에 자리잡은 행운의

세계라는 자연 경이로움에 대한 미화와 방문객 몰입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합니다."

**Angelo Morinell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 건립되는 이 센터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 지역의 역사, 폭포 자체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다운타운 비즈니스 지구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이 "도시 내의 공원" 비전에 추가되고 공원과 도시 사이의 모든 결합이 제거됩니다."

**Robert Restaino** 나이아가라 폭포 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의 지속적인 개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웰컴 센터는 초기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웨스턴 뉴욕의 성장에 기여했던 모든 것을 탐험함으로써 방문객의 경험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것입니다. 도시와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나이아가라 유에스에이(Destination Niagara USA)의 John Perc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투자는 비범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방문객에게 연중 내내 우수한 경험을 선사하는 새로운 최첨단 시설은 공원에 절실히 필요하고 매우 기대되는 추가 시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풍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설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우리의 목적지 전체를 탐험하도록 장려한 뉴욕주립공원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프로젝트는 15억 달러 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 조경 재활 프로젝트를 보완할 것입니다. 2011년에 시작된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 조경 활성화 계획(Niagara Falls State Park landscape revitalization plan)은 주립공원을 디자이너 Frederick Law Olmsted의 풍경에 대한 비전을 잘 반영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개선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루나 아일랜드(Luna Island), 프로스펙트 포인트, 로어 그로브(Lower Grove), 쓰리 시스터 아일랜드(Three Sisters Islands), 노스 쇼어라인 트레일(North Shoreline Trail), 루나 브리지(Luna Bridge), 테라핀 포인트(Terrapin Point)를 포함하는 공원의 주요 전망 지역에 새로운 보행자 산책로, 강화된 조경, 새로운 벤치 및 조명 기둥과 난관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대화형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은 나이아가라 폴스의 자연 및 문화적 역사를 조명하며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885년에 세워진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으로 매년 900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